

江陵의 李朝時代住宅

朱 南 哲

1、江陵의 歷史의 文化的 背景

江陵은 穢貊族이 살던 곳으로 BC 二二九年 以前에는 衛滿朝鮮의 영역이었다.

BC 二二八年 滄海郡의 一部가 되었고 다시 BC 一〇八年 漢四郡時代에는 臨屯郡에 속하였다.

新羅時代 九州때부터 溟州라 칭하여 오다가 高麗成宗 一四年(A D 九五年) 朔方道の 行政中心地가 되어 咸南北과 嶺東일대 또 嶺西의 春川 以北을지를 管轄하였다.

A D 一一七八年(明宗八年) 朔方道를 폐하고 咸南과 慶州군 일대를 臨海溟州라 개칭 그후 A D 一二六三年(원종四年)에 江陵道라 고쳤다가 그후 다시 江陵朔方道라 하였다.

李朝時代 初期에는 江原道 또는 原襄道、原春道라 칭함에 따라 한때 行政中心이 嶺西로 옮겼으나 A D 一四二三年 世宗五年 江原道라 하고 春川府와 江陵府로 나누어 觀察使를 두어 嶺東과 嶺西의 原州 寧越 平昌 正善까지 管轄하여 李朝末까지 왔다.

이상과 같이 江陵은 古代로부터 李朝末에 이르기까지 嶺東地方의 重要한 政治 經濟 文化的 中心地가 되어온 만큼, 이곳의 住宅 특히 上流 住宅은 상당한 수준의 것이며 이들이 찾아한 韓國國住宅史에 있어서의 位置도 상당한 것임을 쉽게 알수 있다.

2、現存住宅의 實例

① 烏竹軒

本軒은 A D 一四五二年 登弟하여 兵曹參判 大司憲을 지낸바 있는 睡軒 崔應賢의 古宅으로 그사위 李思溫에게 준 것을 다시 申命에게 주었다. 申氏 역시 뒤를 이을 자손이 없고 다만 딸 두 형제가 있는바 長女는 權和의 夫人이 되고 次女는 李元秀의 夫人으로 申師任堂이 되었다.

權和의 아들 處均이 申命和의 산소를 奉祀케 됨으로서 이軒은 權氏 소 유로서 보존하게 되고 權處均의 號 烏竹軒에서 屋號를 이름짓게 되었다. 李珪가 A D 一五三七年 二月二六日에 이軒의 온돌방 지금의 『夢龍室』에서 誕生함으로써 歷史的으로 由緒깊은 곳이 되었다.

그러나 이住宅이 가지는 意義는 歷史的으로 유서 깊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現存하는 李朝住宅 遺構中 最古의 것으로 알려진 데 있다.

李朝上流住宅의 사랑채인 이住宅은 正面三間、側面二間の 팔작기와 집으로 一一間은 마루 一一間은 온돌로 되어 있다.

構造의 特色은 住宅建築에 적용된 二翼工形式의 栱包住宅이라 하는 점이 있다. 住宅에 적용된 二翼工系로는 安東臨淸閣君子亭、河回의 忠孝堂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쇠서가 약해지고 단순하게 된 것이다. 烏竹軒과 같이 뚜렷한 二翼工系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基壇은 方柱石을 놓혀서 만들고 초석은 다듬지 않은 큰돌로 이 위에 方柱를 세웠다. 기둥머리는 前述한 一翼工으로 栱包를 짜고 침차에는 곡선으로 처리하였다. 이 곡선은 末期的인 柱心包系統과 相通한다. 기둥과 기둥사이에 한개의 花盤을 얹은바 이花盤 역시 곡선적인 처리를 하였다. 지붕은 겹처마로 팔작기와 지붕이다.

간살은 五椽으로 대청가운데 大椽에는 측면 中心기둥과 연결되는 衝椽을 배치하고 온돌반쪽의 大椽은 가운데 기둥을 받치었다. 대공의 처리 역시 李朝初期 柱心包系統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총량 상부의 지붕합각밀은 우물반자를 가설한바 이는 이조상류주택,

정자등에 널리 활용된 양식으로 現存遺構中 이 烏竹軒의 것이 最古의 것으로 생각된다.

② 海雲亭

本住宅은 李朝 上流住宅의 別堂建築으로 漁村 沈彦 光先生이 中宗 二五年 (A D 一五三〇年) 에 江原道 觀察使로 있을때 지은 것으로 강릉지방에서 烏竹軒 다음으로 오래된 建築이다.

높은 基壇上에 正面三間 側面二間으로 팔작기와 집이다.

構造的 特長은 住宅建築에 적용된 初翼工系로 他地方에서는 獨樂堂 無忝堂、養眞堂 觀稼亭이 이와같은 樣式이다.

그러나 다른 住宅에서와 다른 점은 大廳 階上에 머름청판처럼 널판을 대고 그 가운데를 眼象처럼 파내고 뒤에 창호지를 바른 것이다. (그림 3) 이런 樣式은 後述할 臨鏡堂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他地方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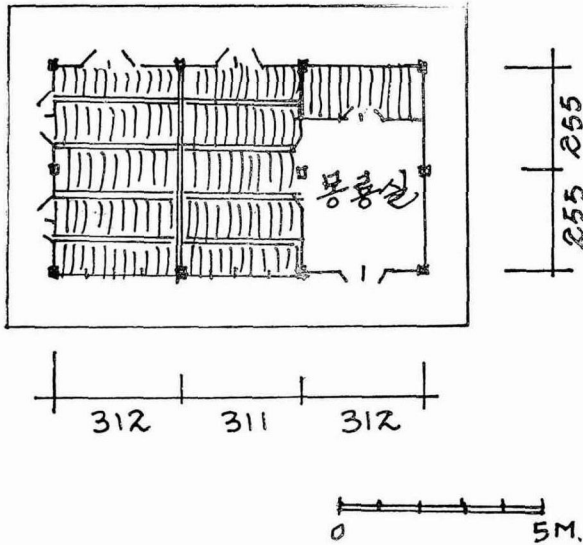


圖 1: 烏竹軒 (강릉시 죽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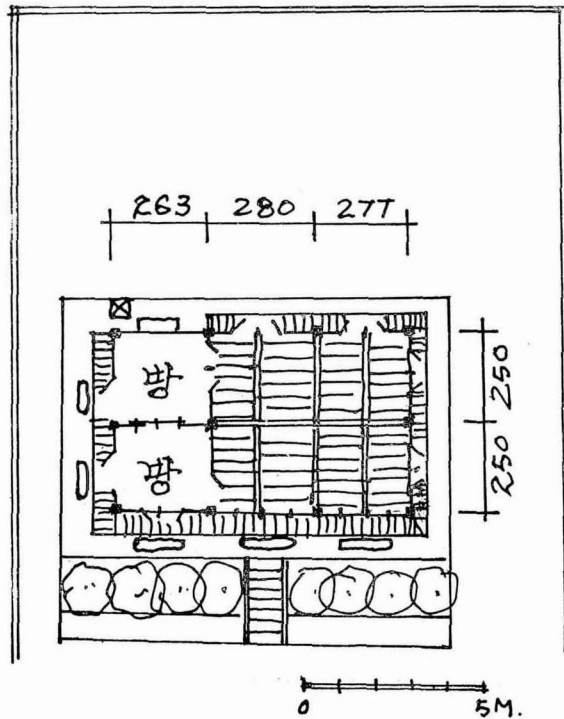


圖 2: 海雲亭

는 발견된바 없는 것으로 안다. 다음 側面 널판문에 있어서 널판문은 烏竹軒과 같은 樣式이지만 문울거미 가운데 가는 실주를 하나 세웠으니 이것은 回德의 同春堂、安東의 養眞堂、臨淸閣、君子亭、法住寺捌相殿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內部에 있어 廳室합각 밑에는 역시 오죽현에서와 같이 우물반자로 처리하였다. 침차에는 곡선처리가 되어있으며 굽도리에 홀쳐마이다. 平面은 大廳二間에 온돌방 一間으로 烏竹軒과 같은 樣式이다.

③ 臨鏡堂

本住宅은 지금까지 學界에 보고된바 없는 住宅으로 李朝上流住宅의 別堂建築이며 또 이와 아울러있는 本채는 강릉지방의 住宅實例로 중요자료가 될수 있다.

本別堂은 現主人 金永來先生의 十六代祖 金光軒進士(鼎峰)의 長子 金



圖 3: 海雲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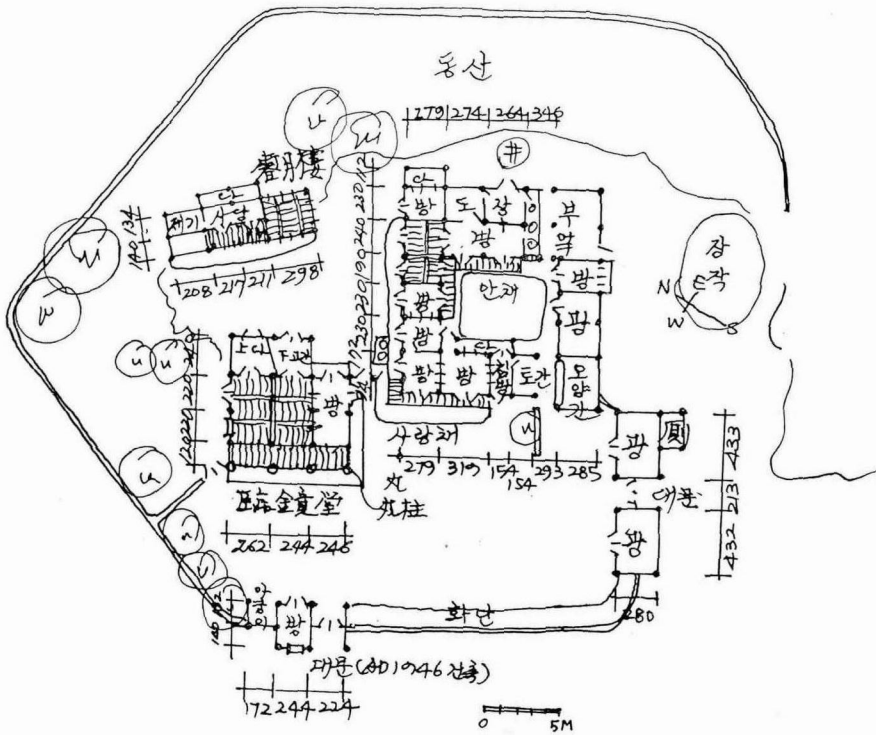


圖 4: 臨鏡堂 平面圖

說(號 臨鏡堂 先生의 號를 따서 지은 것으로 中宗朝에 創建하였다。 臨鏡堂 先生은 前述한 漁村先生(海雲亭의 創建主)과 交流한 分이다。 重修는 道光五年乙酉年(A D 一八一五)에 하였다는 기록이 上樑文과 江陵金氏四世遺稿에 나타나 있다。 重修를 한 分은 六代祖金鍾夏先生이다。 그 후 現金先生의 선고께서 창호를 수리하였다고 한다。

이 別堂과 같이 있는 本채는 역시 임경당 창건 당시에 開基한 것으로 現存 건물은 물론 창건 당시의 것은 아니겠으나 상당히 오래된 古宅으로 보이며 이 平面形態는 강릉지방의 特色을 잘 나타내고 있다。



圖 5 : 臨鏡堂 正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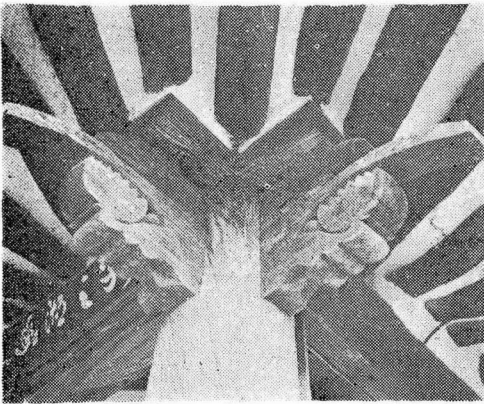


圖 6 : 익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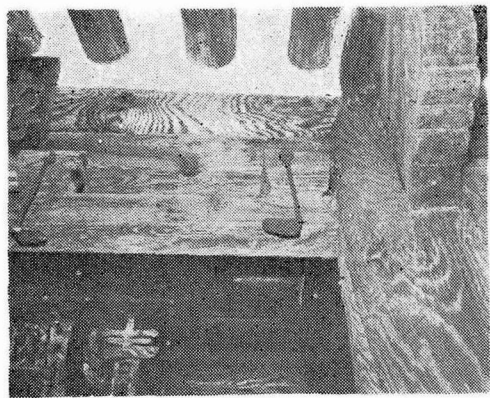


圖 7 : 익공과 들쇠



圖 8: 權氏家

臨鏡堂은 화강석기단상에 正面三間、側面二間の 팔작기와 지붕으로 건축하였다.

낮은막한 基壇 위에 正面 네 개의 기둥을 모두 큰 丸柱로 하여 세우고 기둥머리는 柱頭는 없으나 연꽃봉우리와 초가지리로 새김하여 꽃았다(그림 6, 7) 여기에 사용된 丸柱는 강능 지방에서 權氏家를 제외하고는 實例를 찾아볼수 없는 것이며 他地方 즉 海南의 목우당 경주의 최준가등과 더불어 중요한 실례로 생각된다.

건시에 잘못 마를질하였거나 다른곳의 부재를 옮겨 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장허미를 바치고 있는 소로에 꽃힌 들뢰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같이 주걱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他곳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희귀한 형태이다.

온돌방의 교살덧문 상부에는 亞字交窓을 설치하였고 대청 분합문 상부에는 머름청판과 같이 꾸미고 眼象처럼 파내고 창호지를 뒷면에 부쳤다. 이는 前述한 海雲亭의 그것과 同一한 것으로 臨鏡公이 漁村先生과 交流한 것으로 보아 同時代의 한 樣式으로 생각할 수 있다.

內部構造는 보통 五椽構造로 대공이나 동자기둥에 이렇다할 特色은 찾아볼수 없고 천정도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臨鏡堂 옆에 자리잡은 본채는 확실한 建築年代는 알수없으나 本來 臨

鏡堂創建當時에 開基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간의 重修는 하였겠지만 平面形態는 別다른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대문을 들어서면 맞은편에 前述한 臨鏡堂이 보이고 그 右側으로 字型的 住宅이 보이는바 이것이 본채이다. 이 채의 左側端에 사랑방이 놓이고 그 右側에 침방, 또 안채로 들어가는 中門이 외양간과 함께 설치되어 있다. 中門으로 들어서면 안채가 마주친다. 안채는 안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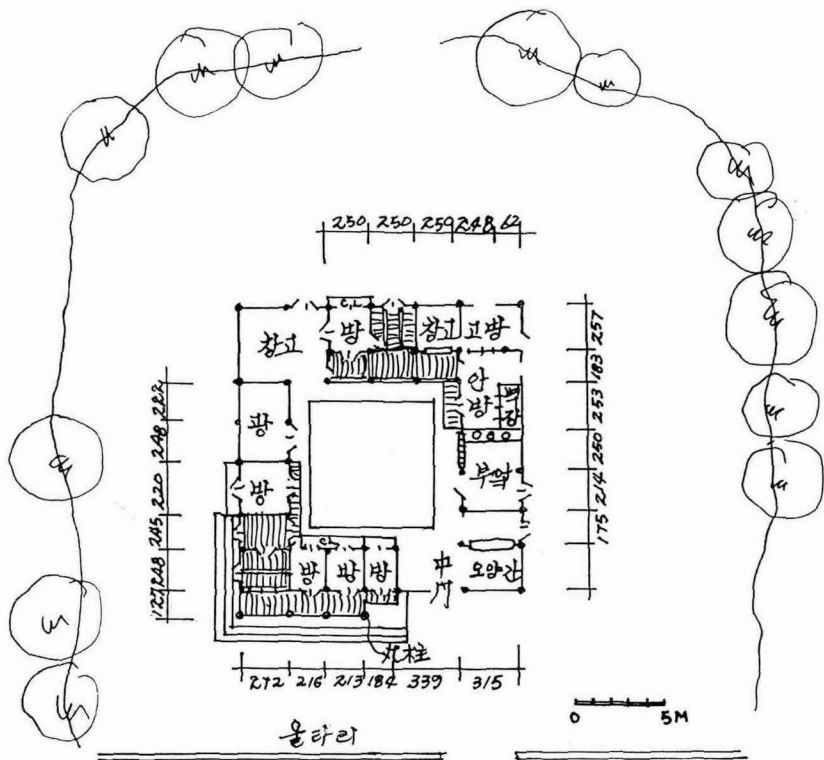


圖 9: 權氏家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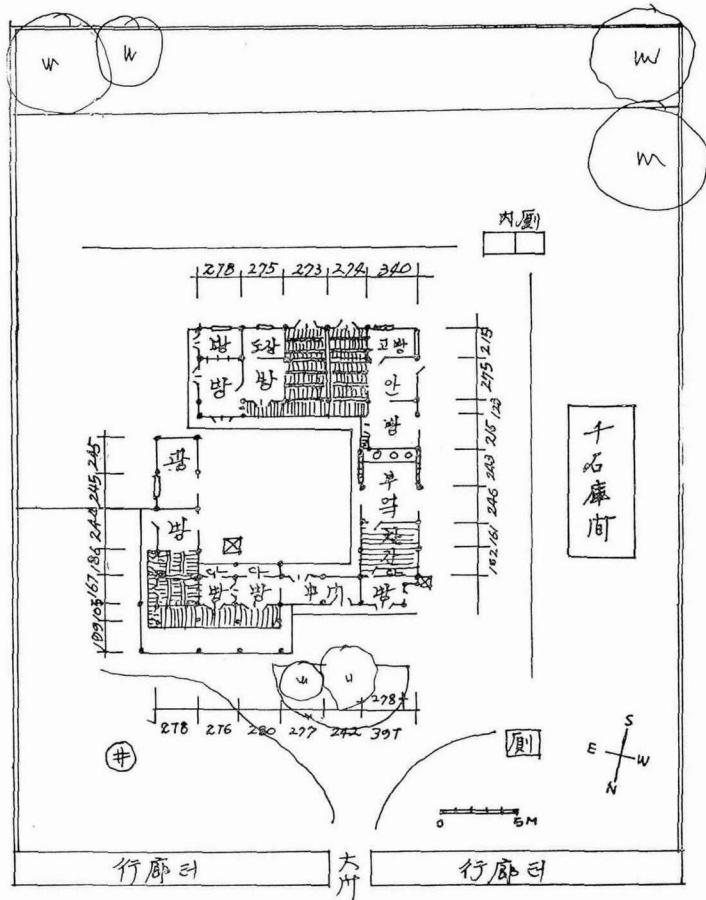


圖 10：崔 氏 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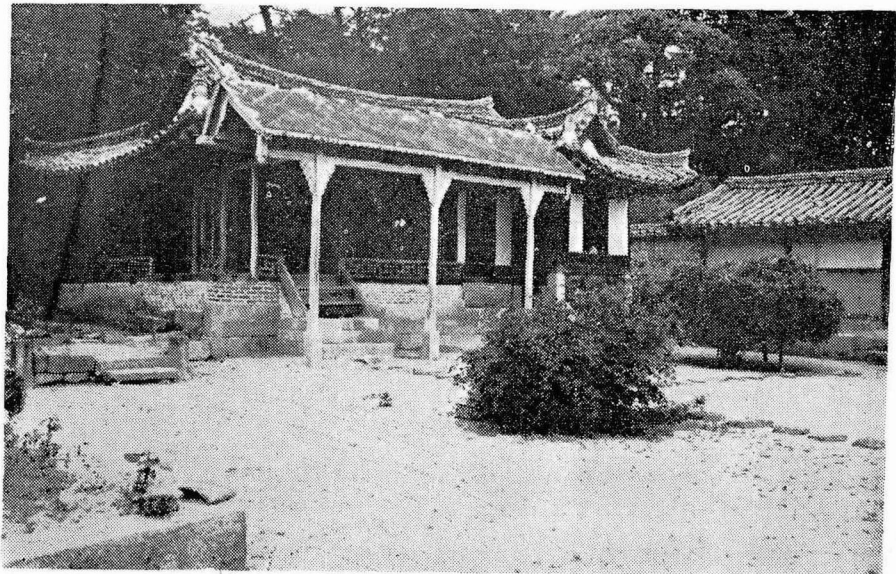


圖 11：悅 話 堂

광으로 외양간과 연결되어 있다.

본채의 左側 마당에는 祠堂채가 正面四間、側面一間的 기와지붕으로 되어있다. 이채는 본채 正面三間的 사당에다 大門 옆에 있던 香月樓를 AD一九四六年에 이진한 것이라 한다.

④ 權氏家

本住宅은 現主人 권혁주선생 소장본인 竹巖遺稿에 의하면 『甲午二月十六日』에 改建上棟文이 나타나는데 이는 烏竹軒의 現 御製閣 建築年인 戊申 五月十六日(AD一七八八)보다 一四년전인 AD一七七四년이며, 어제각을 건축한 木手가 건축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때의 건축주는 현권혁주선생의 八代祖父로 병조정랑의 벼슬에 계셨다고 한다.

住宅의 全體配置는 山谷의 넓은 垆地에 口字形으로 집을 앉혔다. 본채는 담장과 행랑채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모두 없어지고 그림 8에서 보는 바와이갈 문설주 상부를 원형만으로 마감한 中門으로 들어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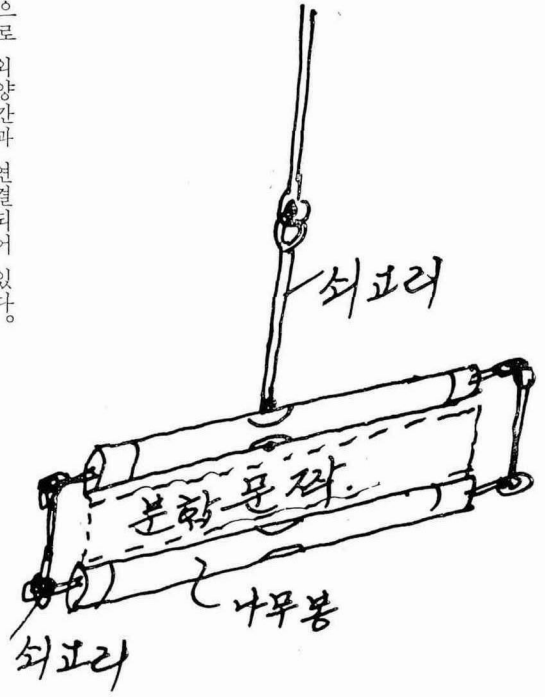


圖 13: 들 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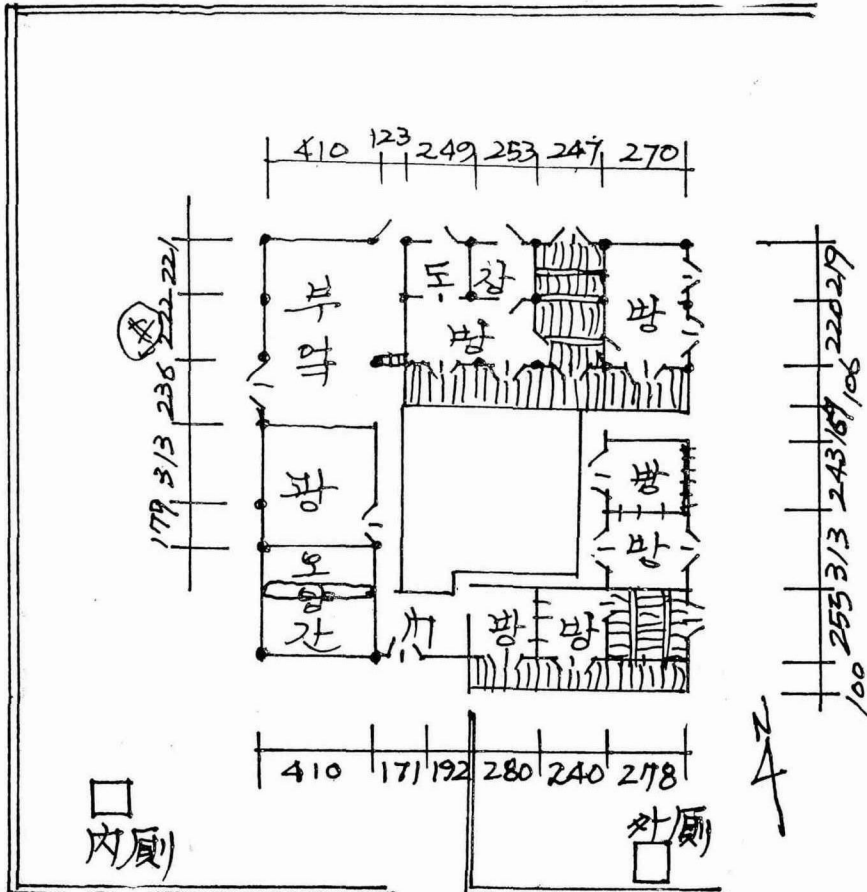


圖 14: 沈氏家平面圖

된다. 이 中門의 左側에는 사랑채가 방과 대청의 순으로 설치되고 7자로 꺾여서 다시 방과 광의 순으로 안채 左側끝과 연결된다. 안채는 부엌 안방, 고방, 대청, 건너방으로 되어있고 전면에 퇴가 있다.

그림 9에서 보는 외양간자리는 현재 광으로 사용하고 있다. 構造的으로 살펴보면 과히 높지않은 基壇上에 方柱를 세웠다. 단 사랑채 前面 퇴에 자리잡은 四本의 기둥은 모두 굵은 둥근기둥을 사용한 바 이는 創建當時 甁조정랑 벽체에 있었던 관계로 特別히 사용한 것이라 고 진한다.

도리는 남도리이고 홀처마에 기와지붕이다. 한가지 特記하여야 할 것은 안채대청에 자리잡은 창고로 이는 대청의 한쪽을 기둥을 세워 벽을 만들고 창을 설치하고 出入口는 안방위의 고방에서만 出入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창고의 설치는 이 지방뿐만 아니라 他地方民家에서도 그 實例를 찾아 볼 수 없는 희귀하고 특이한 구조인 것이다.

⑤ 崔氏家.

崔氏家는 지금부터 약 二〇〇여년전 건축이라고 한다.

平面配置는 方形垜地에 現存하지는 않으나 본래 솟을 대문 左右로 行廊채가 있었고 대문을 들어서면 맞은편에 口字形으로 구성된 平面에 안채 사랑채, 광이 연결되어 있다. 안채는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으로 사랑채는 방과 대청, 방의 순으로 구성된다. (그림 10)

構造는 홀처마의 팔작기와지붕으로 간살은 五檼이며 남도리이다.

⑥ 船橋莊

本住宅은 現李起載先生의 七代祖 全州人 李乃蕃先生이 開基한 것으로 이 중 사랑채인 悅話堂은 純祖 一五年(AD 一八一五年)에 鰲隱處士 李屋先

生이 建立한 것이고 亭子인 活來亭은 純祖 一六年(AD 一八一六年)에 李根字先生이 증진하였다. 또 안채에 붙은 東別堂은 약 四〇년전 새로 건립하였다고 한다.

집전체는 상당히 넓은 垜地에 제일 마갈마당에 연못을 파고 活來亭이라는 亭子를 배치하고, 다음 출행랑 中央에 난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左側으로 넓은 마당이 나타나고 그 앞에 悅話堂이라 堂號를 붙인 사랑채가 서 있다.

사랑채는 正面四間에 側面二間으로 大廳과 방, 루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행랑채에 붙은 다른 平大門을 통하면 안마당에 이르고 前面 높직히 안채와 東別堂이 자리잡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광과 中門, 방으로 구성된 행랑채가 있고 그 앞에 西別堂址가 있다.

또 사랑채 퇴와 행랑채 左側과는 광과 방으로 구성된 출행랑이 있었고 여기에는 세면소, 다(茶) 끓이는 곳, 廁間, 욕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構造는 사랑채가 팔작기와 지붕으로 前面에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눈, 햇볕을 가릴 구조로 되어 있다.

사랑채의 대청천정은 모두 우물천정으로 처리하였고 여기에 사용된 들되는 둥근 막대기를 나란히 두개 매달아(그림 13) 그 사이에 분합문을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他住宅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⑦ 沈氏家.

지금부터 약 一〇〇여년전 건축으로 추정되는 이 주택은 海雲亭 바로 옆에 있다. 平面配置는 口字形에 안채, 사랑채가 中門의 양간 등으로 한 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14)

이 주택의 구조는 五檼간살의 남도리집으로 부엌은 없고 팔작기와지붕으로 別다른 특징은 없다. 단지 中門上部는 權氏家에서와 같이 반원으로

처리한 것이 共通의 인상을 준다.

3、江陵地方住宅의 特色

강릉지방의 주택 특히 上流住宅에서 나타난 이 지방의 平面的 特色은 中央에 中庭을 두고 안채, 사랑채를 口字形平面的의 대각선상에 배치한 점이다. 권씨가 임정당, 최씨가 모두 그리하며 심씨가에서는 上記住宅과 정반대의 위치에 안채와 사랑채가 자리잡았을뿐 그 기본 형태는 同一하다.

또 안채와 사랑채 사이는 右側으로는 中門, 오양간, 광으로 연결되고 좌측으로는 방과 광으로 안채의 건너방 끝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平面形態는 李朝中期부터 말기에 이르는 住宅實例에 共通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地方上流住宅의 特色이 아닌가 한다.

構造와 意匠上으로 나타난 共通의 特色은 論하기 힘들으나, 이 地方住宅의 各各에 나타난 특이한 구조나 의장수법은 論할 가치있는 것이다.

첫째 비교적 이 지방 上流住宅에 共通적으로 나타난 특색은 別堂建築의 분합본 上部를 머름청판식으로 하고 그 관가운데를 眼象모양으로 내고 그 後面에 종이를 바른 양식이다. 이는 앞에서 論한 바와같이 海雲亭에서 시작되어 臨鏡堂에서 찾아볼 수 있고 말기건축인 草堂洞의 鄭氏家에서 다시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中期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臨鏡堂의 들쇠와 船稿莊의 들쇠는 特殊한 形態의 것이다.

끝으로 海雲亭 側面 문울거미 중앙에 세운 가느다란 설주의 설치수법은 前述한 바와같이 李朝中期에 建築된 他地方의 住宅 및 사찰에서 나타나지는 특수한 것임을 부기하여 둔다.

4、結 語

지금까지의 고찰로 강릉의 이조시대 상류주택이 한국주택사에서 찾아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것이며 귀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한 지역내에 비교적 많은 遺構가 現存하며 또한 이들로부터 他地方의 上流住宅과는 다른 特色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意義를 지닌다.

이상의 遺構中 이미 보물과 민속자료로 지정된 오죽헌, 해운정 선교장을 제외하고도 權氏家, 臨鏡堂은 새로이 민속자료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上述한 바와같이 權氏家는 創建年代가 확실한 李朝中期의 住宅이며 御製閣과 同一한 木手가 지었다는 점과 안채 대청에 자리잡은 庫間의 양식은 民俗學上 特異하며, 사랑채의 굽은 丸柱역시 희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臨鏡堂에 있어서는 비록 그 의장수법이 세련된 것은 아니나 文獻으로 建築時期가 확실하며 굽은 丸柱의 使用과 분합본 상부의 머름청판식 구조는 前述한 바와같이 海雲亭에서 시작하여 末期의 草堂洞 鄭氏家에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江陵의 歷史變遷과 文化

崔善萬、江陵觀光協會 一九六二、十一、六。

江陵金氏四世遺稿..金永來편、臨鏡堂、

竹巖遺稿 권혁주선생 소장본.